

##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

김 두 영\*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연구전담 조교수

박 원 희\*\*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 《요약》

---

이 연구는 장애인야학의 현황을 교육과정, 학생현황 및 교사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전국장애인야학협회 소속 장애인야학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5.6%에 해당하는 20개교가 설문에 응하였다. 또한 설문내용에 대한 분석과 장애인야학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직 장애인야학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도 병행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야학에서는 기관 당 평균 4.25개 학급의 기초문해반 및 점성고시반을 운영하고 있고, 평균 2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다양한 특별 운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야학 학생들은 연령 및 학력 분포가 매우 다양하고, 고연령 및 저학력 학생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야학의 교사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의 교사가, 경력별로 살펴보면 1년에서 3년 미만의 경력 교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야학 교사 중 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전체 교사의 3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신입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다. 하지만 교사의 전문성이 극히 결여되어 있는 일반야학에 비해 장애이해 및 전문적인 교사 준비과정을 거친 교사들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으며, 야학 교사들 역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야학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주제어 : 야학,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

\* 제1저자(kdy205@chol.com)

\*\* 교신저자(dklivings@daum.net)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과학기술부는 소득별, 학력별, 연령별, 지역별로 증가하고 있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교육기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001년부터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그러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보다 절실한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여러 교육 프로그램의 수혜가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 진정한 학습소외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김두영, 박원희, 2013a). 특히 장애인들은 물리적, 시간적, 신체적 제약 때문에 복지관이나 인력개발센터, 교육훈련기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근할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변용찬 외, 2001). 평생학습이 모든 이를 위한 교육권이자 학습권이라고 할 때 장애인 역시 평생학습권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다(한준상, 2001). 하지만 장애인들은 장애를 이유로 교육환경에서, 사회와 교육기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 왔으며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권리를 향유하거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인식에 근거하여 장애의 심각도에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을 위한 생애단계별 균형 있는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특히 성인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을 위한 계획들이 특수교육 발전방안들에 포함되기 시작하였다(김두영, 2013). 「제3차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교육과학기술부, 2008)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게도 평생교육 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운영지원을 통해 장애성인의 평생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장애성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 성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성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및 장애성인교육 운영 모형 개발 연구」(임경원 외, 2010) 용역을 충남교육청을 통해 실시한 바 있으며, 일부 시·도 교육청 역시 장애성인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평생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김운태 외, 2009; 김정재 외, 2009; 강순원 외, 2011)를 실시한 바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정인숙 외, 2005)에 이어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실태와 요구를 조사하여, 직업재활을 축으로 일상생활, 사회기술훈련, 여가생활이 함께 어우러진 자연생태학적 환경 모형을 제시한 연구(윤점룡 외, 2010)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모형 연구(송소현 외, 2011)를 진행한 바 있다. 또 한국복지대학에서는 최근 대학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연구(김주영 외, 2013)를 진행하였으며, 평생교육에 대한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밝히기 위해 2014년 2월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요구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정인숙 외, 2005; 박은혜 외, 2007; 정해동, 이성봉, 2007 등).

2000년대 후반 이후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일련의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들은 그 동안 장애인 평생교육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그간의 실태조사들은 다양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담당자 혹은 기관을 이용하는 장애성인이나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특정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인 교사, 학생 및 교육과정을 심층 분석하고 그 기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보다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연구(임경원 외, 2010)에 따르면,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위해 이용한 운영기관의 종류는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문화센터 등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야학이나 장애인 공부방 등 ‘학교형태의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평생교육 기관 등의 프로그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원 또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종교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나 장애인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에서 장애인야학은 명실공히 대표적인 장애인 평생교육시설로서 이미 지난 20여 년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많은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의 기회를 제공해 왔고, 대학 진학 등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자아성취감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야학은 장애인권 교육, 인문학 강좌, 철학반 등의 인문교양교육과 연극, 영화, 노래,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단순히 검정고시 야학으로서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김두영, 박원희, 2013b).

이에 이 연구는 향후 장애성인 평생교육의 핵심이 될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을 교육의 구성하는 3요소인 교육과정, 학생 및 교사현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장애인야학 현직 상근교사들과의 면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야학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첫째, 장애인야학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장애인야학의 학생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셋째, 장애인야학의 교사 현황 및 특성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이 연구는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장애인야학협회의 협조를 얻어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는 전국장애인야학협회 소속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55.6%에 해당하는 20개 기관이 설문에 응하였다. 조사 대상 장애인야학의 지역별, 운영주체별,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설립연도별 현황은 다음의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조사 대상 장애인야학의 일반적 현황

| 항 목           | 구 분           | N  | %    |
|---------------|---------------|----|------|
| 지역별           | 수도권           | 8  | 40   |
|               | 충청권           | 3  | 15.0 |
|               | 영남권           | 3  | 15.0 |
|               | 호남권           | 4  | 20.0 |
|               | 강원·제주권        | 2  | 10.0 |
| 운영주체별         | 법인            | 6  | 30.0 |
|               | 민간            | 14 | 70.0 |
|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별 | 등록            | 11 | 55.0 |
|               | 미등록           | 9  | 45.0 |
| 설립연도          | 1995년 이전      | 3  | 15.0 |
|               | 1996년 ~ 2000년 | 2  | 10.0 |
|               | 2000년 ~ 2005년 | 5  | 25.0 |
|               | 2005년 이후      | 10 | 50.0 |
| 계             |               | 20 | 100  |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수도권이 8개(40%)로 가장 많았고, 호남권이 4개(20.0%), 충청권과 영남권이 각각 3개(15.0%), 강원·제주권이 2개(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주체를 법인과 민간단체로 나누어 살펴보면, 법인이 6개(30.0%), 비영리민간단체가 14개(70.0%)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에 따라 살펴보면, 등록한 야학이 11개(55.5%), 등록하지 않은 야학이 9개(45.5%)로 나타났다. 한편 설립연도별로 살펴보면, 2000년 이후에 개교한 장애인야학이 15개교(75.0%)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장애인야학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장애인야학의 현직교사 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모두 서울의 한 장애인야학에서 상근교사로 재직하는 자들로 면담 참여자와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면담 참여자의 일반적 정보

| 대상자 | 성별 | 연령대 | 관련 자격증  | 담당과정   | 야학교사 경력 |
|-----|----|-----|---------|--------|---------|
| A   | 여  | 20대 | 평생교육사2급 | 초등     | 6년 이상   |
| B   | 남  | 30대 | 무       | 초등, 고등 | 3년 이상   |
| C   | 남  | 30대 | 무       | 초등     | 7년 이상   |
| D   | 남  | 30대 | 무       | 고등     | 7년 이상   |
| E   | 남  | 50대 | 무       | 기초문해   | 20년 이상  |

## 2. 조사 도구

장애인야학의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을 조사·분석하기 위해 장애인야학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설문지 및 면담지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지와 면담지는 내용타당도 검증을 위해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간부 2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문항에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설문지 내용에서 과정별 담당교사 수, 기타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교사의 자격증 소지 현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교사 현황에서 신입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의 삽입에 대한 요구 등이 있어 지적사항에 따라 수정하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제작된 설문지는 장애인야학 기관의 일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설립 연월일, 소재지, 모 단체의 법적 근거(운영주체),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 설립목적 등을 포함하였다. 설문지의 문항은 교육과정 운영 현황 17문항, 학생 현황 12문항, 교사 현황 1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 구성 요소

| 조사 영역 | 하위조사 영역                                                                                                                                                                   |
|-------|---------------------------------------------------------------------------------------------------------------------------------------------------------------------------|
| 일반사항  | 단체명, 대표자, 설립 년 월일, 소재지, 모 단체의 법적 근거, 평생교육시설 등록 여부, 설립목적                                                                                                                   |
| 교육과정  | 문해기초반 현황(학급 수, 학생 수, 담당교사 수), 초등과정반 현황(학급 수, 학생 수, 담당교사 수), 중학과정반 현황(학급 수, 학생 수, 담당교사 수), 고등과정반 현황(학급 수, 학생 수, 담당교사 수), 기타 특별 운영 프로그램 세부 현황(프로그램의 명칭, 목적, 내용, 대상, 형식, 장소) |
| 학생 현황 | 과정별·연령별 학생 수, 과정별·장애유형별 학생 수, 과정별·최종학력별 학생 수                                                                                                                              |
| 교사 현황 | 유급정교사, 유급보조교사, 무급정교사, 무급보조교사, 상근 실무자, 비상근 실무자, 성별·연령별 교사 수, 성별·경력별 교사 수, 자격증 소지 현황, 신입교사 교육 프로그램(내용, 횟수, 진행 형태), 교육 기자재 보유 현황                                             |

또한 면담지의 구성 내용은 일반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관련 자격증 유무, 담당과정, 야학경력 등을 포함하였다. 면담지의 항목은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0문항, 학생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9문항, 교사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4>와 같다. 이 때 반구조화된 형태의 질문지로 질문을 구성하여 실제 면담에서는 질문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4〉

면담지 구성 요소

| 조사영역  | 하위조사 영역                                                                                                                                                                                            |
|-------|----------------------------------------------------------------------------------------------------------------------------------------------------------------------------------------------------|
| 일반사항  | 성별, 연령, 교육관련 자격증 유무, 담당과정, 야학경력                                                                                                                                                                    |
| 교육과정  | 문해교육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초등과정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중학과정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고등과정반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기타 특별운영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학생 현황 | 과정별·연령별 학생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정별·장애유형별 학생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과정별·학력별 학생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교사 현황 | 교사 및 실무자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별·연령별 교사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성별·경력별 교사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사의 자격증 소지 현황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신입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교육기자재 시설 보유 현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3. 절 차

먼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36개 야학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각 기관의 실무자가 작성하도록 하였다. 협의회 소속 36개 기관 중 55.6%에 해당하는 20개 기관이 설문에 응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누락된 항목이 있거나 항목 간에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응답이 있을 경우, 직접 전화나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한 후 수정하였다. 그 결과 20개의 응답 모두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2차 면담조사는 1차 설문조사가 끝나고 회수된 자료를 모두 통계처리한 후에 실시하였다. 1차 설문조사에서 얻은 통계표를 면담지와 함께 이메일로 발송한 후, 2주 후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과정 현황, 학생 및 교사 현황 분석 결과에 대한 의견과 각각의 현황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 4. 자료 처리

이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한글판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장애인야학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학생 및 교사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혹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면담조사 결과는 질문 주제에 따른 내용을 전사하여 하위 영역을 도출하였으며, 면담 참여자별로 응답의 빈도와 강도를 비교·분석하고, 구체적인 응답내용을 통해 그들의 의견 및 요구를 분석하는 질적 분석을 통해 처리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장애인야학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

장애인 평생교육을 언급할 때는 국민으로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공통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들의 학력보완 방안을 먼저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야학의 본래 취지 역시 학교교육에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학교교육을 보완해 주는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이미 장애인야학은 지난 20여 년간 많은 장애인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취득의 기회

를 제공해 왔다.

이에 이 연구는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20개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그리고 기타 특별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각각 조사·분석하였다.

### 1)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과정 운영 현황

장애인야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검정고시반) 교육과정의 학급 수, 학생 수, 그리고 담당 교사 수를 조사·분석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장애인야학 기초문해 및 학력보완 교육과정 운영 현황 N(%)

| 구분 \ 과정 | 기초문해반         | 초등과정반         | 중학과정반         | 고등과정반         | 계            |
|---------|---------------|---------------|---------------|---------------|--------------|
| 학급 수    | 32<br>(37.7)  | 15<br>(17.7)  | 19<br>(22.4)  | 18<br>(21.2)  | 85<br>(100)  |
| 학생 수    | 207<br>(38.1) | 110<br>(20.2) | 118<br>(21.7) | 109<br>(20.0) | 544<br>(100) |
| 담당교사 수* | 78<br>(23.7)  | 52<br>(15.8)  | 91<br>(27.7)  | 108<br>(32.8) | 329<br>(100) |

\* 담당교사 수는 과정별 중복 합산된 자료임.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문해반 및 검정고시반은 모두 85 학급으로 기관 당 평균 4.25개 학급을 개설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기초문해반이 32 학급(37.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중학과정반이 19학급(22.4%), 고등과정반이 18학급(21.2%), 초등과정반이 15학급(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초문해반 및 검정고시반에 재학 중인 학생은 모두 544명으로 기관 당 평균 27.2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기초문해반 학생이 207명(38.1%)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중학과정반이 118명으로 전체의 21.7%, 초등과정반이 110명으로 전체의 20.2%, 고등과정반이 109명으로 전체의 20.0%를 차지하여 근소한 차이로 그 뒤를 잇고 있다.

한편 기초문해반 및 검정고시반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중복 합산하여 조사한 결과, 고등과정반 담당교사가 108명(3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중학과정반 담당교사가 91명(27.7%), 기초문해반 담당교사가 78명(23.7%), 초등과정반 담당교사가 52명(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설문 내용과 관련하여 야학 교사들은 기초문해반 학급 및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야학교사 D: 장애인야학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고등학교까지 다 졸업하셨지만, '공부를 다시 배우고 싶다'는 이유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발달장애 학생의 어머니가 자녀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에 야학에 다닐 수 있는지 물어 오기도 하거든요,

야학교사 B: 기초문해반에는 지적장애 학생 분도 많고, 오랜 세월동안 교육받지 못함으로 인해 학습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학생 분도 많아요, 그리고 중증의 장애로 인해 오직 눈으로만 학습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기초문해반 학생들은 다른 반에 비해 진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야학교사 A: 지적장애 학생 분들과 어떻게 수업을 꾸려 나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수 개념을 어떻게 이해시켜야 할지, 자음과 모음이 만나 하나의 음절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할지 어려워요,

야학교사 C: 기초문해반의 경우 반복학습이 많은데 흥미를 지속시킬 수 있으면서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는 교재, 특히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재가 있으면 좋겠어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에 대한 교재를 개발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교재에 나타난 예시문을 보면 성인이 학습하기에 부적절한 예 등이 많은 것 같아요, 실생활과 관계가 있는 내용들로 채워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야학교사 E: 고등과정의 경우 학생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 있는 교사들을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대학진학에 대한 욕구가 있는 학생들에게 진학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교사가 있어야 해요,

이처럼 대부분의 야학 교사들은 최근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야학을 찾아오는 발달장애인들의 증가와 낮은 진급률로 인해 기초문해반 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발달장애인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지도 방법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 또한 다양한 장애유형별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개별화 수업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맞춤형 교재의 개발, 보조인력의 배치, 전문적인 상담교사의 배치, 교사에 대한 교수·학습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 2) 기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결과 장애인야학에서는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 외에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장애인야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김두영, 박원희, 2013a)를 적용하여 분류한 결과 다음의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표 6〉 장애인야학의 기타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대분류 | 직업능력<br>향상교육 | 문화예술<br>교육 | 인문교양<br>교육 | 시민참여<br>교육 | 총계  |
|-----|--------------|------------|------------|------------|-----|
| N   | 1            | 40         | 28         | 8          | 77  |
| %   | 1.3          | 51.9       | 36.4       | 10.4       | 100 |

장애인야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타 특별활동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교육이 40개(51.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인문교양교육 28개(36.4%), 시민참여교육 8개(10.4%), 직업능력향상교육 1개(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댄스스포츠, 탁구교실, 체조교실, 에어로빅, 보치아 등의 여가스포츠 프로그램과 노래교실, 사진교실, 음악교실, 영화감상반 등의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그리고 피아노교실, 오카리나반, 기타교실, 합창교실, 연극반, 미디어반 등의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인문교양교육으로는 재활운동, 수화교실 등의 사회재활 프로그램과 영어기초회화, 한자교실, 컴퓨터교실, 스마트폰 교육반, 독서반 등의 생활소양 프로그램, 그리고 자아 찾기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철학반 등의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교육은 권익옹호학교, 인권교육 등의 시민의식 프로그램과 장애인권 강사 양성교육, 수화통역사 양성교육 등의 시민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민활동 프로그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직업능력 향상교육은 오직 한 곳에서만 전문 컴퓨터 디자이너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을 면담한 결과, 교사들 모두 야학의 특별활동 프로그램, 특히 인문교양교육과 시민참여교육에 대하여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야학교사 B: 야학의 특별수업은 다른 교과목 수업보다 인기가 많아요, 특히 교실에서 수업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수업은 더 인기가 많죠.

야학교사 E: 어찌 보면 장애성인들에게 더 필요한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삶을 가꾸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인문학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야학교사 D: 장애인야학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인문교양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장애인 공동체로서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런 노력의 밑거름이 되는 교육이 바로 인문교양교육과 시민참여교육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검정고시 일변도의 학습 커리큘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도 인문학이나 시민참여교육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야학 교사들은 특별활동 수업 진행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야학교사 D: 특별수업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강사가 절실히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전문적인 강사들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매우 힘들어 한다는 거죠,

이처럼 야학 교사들은 다양한 장애유형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기능을 요구하는 수업을 진행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강사를 구하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었다.

## 2. 장애인야학의 학생 현황

장애인야학을 찾는 학생들은 매우 다양하다. 장애인야학은 일반적인 장애인 교육 시설과는 달리 특정 연령이나 특정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입학에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에서 기초문해교육 및 학력보완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들의 연령별, 장애유형별, 그리고 학력별 분포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 1)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연령별 분포 현황

먼저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전체적인 학력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과정별·학력별 분포 현황

N(%)

| 과정 \ 학력 | 초졸 미만         | 초졸            | 중졸            | 고졸           | 계            |
|---------|---------------|---------------|---------------|--------------|--------------|
| 기초문해반   | 125<br>(60.4) | 29<br>(14.0)  | 24<br>(11.6)  | 29<br>(14.0) | 207<br>(100) |
| 초등과정반   | 80<br>(72.7)  | 10<br>(9.1)   | 7<br>(6.4)    | 13<br>(11.8) | 110<br>(100) |
| 중학과정반   | 16<br>(13.5)  | 82<br>(69.5)  | 14<br>(11.9)  | 6<br>(5.1)   | 118<br>(100) |
| 고등과정반   | 13<br>(11.9)  | 6<br>(5.5)    | 66<br>(60.6)  | 24<br>(22.0) | 109<br>(100) |
| 합 계     | 234<br>(43.0) | 127<br>(23.4) | 111<br>(20.4) | 72<br>(13.2) | 544<br>(100) |

표를 살펴보면, 무학을 포함한 초등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 234명으로 전체의 43.0%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초등학교 졸업 127명(23.4%), 중학교 졸업 111명(20.4%), 고등학교 졸업 72명(13.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과정별로 살펴보면, 기초문해반과 초등과정반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 각각 60.4%, 7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초졸, 중졸, 고졸의 학력을 가진 학생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과정반과 고등과정반 역시 초등학교 졸업자와 중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가장 많았으나 그 외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대부분은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 현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야학교사 C: 기초문해반에 초졸 이상의 학력자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이유는 기존의 공교육에 참여했던 장애인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방치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 아닐까요?

야학교사 E: 전체 장애인의 절반이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정부 통계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학교를 졸업하고도 다시 야학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마도..., 학교에서 못 다한 공부를 하기 위함이고, 시간을 보낼 곳이 필요하기 때문이며, 야학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더불어 투쟁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야학이 공교육체계에 있을 수 없는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이처럼 야학 교사들은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회의감을 나타내면서도 그것이 바로 장애인야학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 2)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장애유형별 분포 현황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주된 장애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장애유형은 지적장애(30.5%)였으며, 다음은 지체장애(29.0%), 뇌병변장애(23.2%) 순으로 나타나, 사실상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대부분(82.7%)을 차지하였다. 한편, 장애가 없는 비장애 학생도 전체의 12.1%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야학에서 장애인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까지 수용하여 교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다시 과정별로 살펴보면, 기초문해반은 지적장애 학생이 절반 이상(52.2%)을 차지하였으며, 중학과정반과 고등과정반은 지체장애 학생과 뇌병변장애 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장애유형의 학생 구성은 야학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있어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교사들은 말하고 있다.

야학교사 A: 기초문해반에서 지적장애 학생들과 뇌병변 학생들이 함께 섞여 있을 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실제로 학생들 간의 장애 차이 때문에 다툼도 잦은 편이에요,

야학교사 D: 장애유형에 따라서 학급이 나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안 되더라도 같은 반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유형별로 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을 다르게 적용해야 좀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처럼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다양한 장애유형의 학생들을 한 공간에서 수업하는 것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였고, 장애유형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이나 교육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었다.

<표 8>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과정별 · 장애유형별 분포 현황

N(%)

| 과정 \ 장애 유형 | 지체 장애         | 뇌병변 장애        | 지적 장애         | 언어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비 장애인        | 계            |
|------------|---------------|---------------|---------------|-------------|-------------|------------|--------------|--------------|
| 기초문해반      | 51<br>(24.6)  | 27<br>(13.0)  | 108<br>(52.2) | 4<br>(1.9)  | 2<br>(1.0)  | 5<br>(2.4) | 10<br>(4.8)  | 207<br>(100) |
| 초등과정반      | 22<br>(20.0)  | 31<br>(28.2)  | 27<br>(24.5)  | 2<br>(1.8)  | 0<br>(0)    | 1<br>(0.9) | 27<br>(24.5) | 110<br>(100) |
| 중학과정반      | 36<br>(30.5)  | 35<br>(29.7)  | 19<br>(16.1)  | 4<br>(3.4)  | 3<br>(2.5)  | 2<br>(1.7) | 19<br>(16.1) | 118<br>(100) |
| 고등과정반      | 49<br>(45.0)  | 33<br>(30.3)  | 12<br>(11.0)  | 0<br>(0)    | 5<br>(4.6)  | 0<br>(0)   | 10<br>(9.2)  | 109<br>(100) |
| 합 계        | 158<br>(29.0) | 126<br>(23.2) | 166<br>(30.5) | 10<br>(1.8) | 10<br>(1.8) | 8<br>(1.5) | 66<br>(12.1) | 544<br>(100) |

### 3)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학력별 분포 현황

다음의 <표 9>와 같이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연령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학생 중 50대 이상의 학생이 181명으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40대가 175명으로 32.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30대가 132명(24.3%), 20대가 55명(10.1%), 10대가 1명(0.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과정별로 살펴보면, 기초문해반과 초등과정반은 50대 이상의 학생들이 각각 30.9%와 42.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중학과정반과 고등과정

## 32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5권 2호)

반은 40대가 각각 39.0%와 36.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연령은 10대에서부터 50대 이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고 연령 학생들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9〉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과정별·연령별 분포 현황

N(%)

| 과정 \ 연령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이상        | 계            |
|---------|------------|--------------|---------------|---------------|---------------|--------------|
| 기초문해반   | 0<br>(0)   | 25<br>(12.1) | 63<br>(30.4)  | 55<br>(26.6)  | 64<br>(30.9)  | 207<br>(100) |
| 초등과정반   | 0<br>(0)   | 11<br>(10.0) | 18<br>(16.4)  | 34<br>(30.9)  | 47<br>(42.7)  | 110<br>(100) |
| 중학과정반   | 1<br>(0.8) | 6<br>(5.1)   | 25<br>(21.2)  | 46<br>(39.0)  | 40<br>(33.9)  | 118<br>(100) |
| 고등과정반   | 0<br>(0)   | 13<br>(11.9) | 26<br>(23.9)  | 40<br>(36.7)  | 30<br>(27.5)  | 109<br>(100) |
| 합 계     | 1<br>(0.2) | 55<br>(10.1) | 132<br>(24.3) | 175<br>(32.2) | 181<br>(33.3) | 544<br>(100) |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학령기 장애인의 교육 여건이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 연령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야학 학생들의 누적 현상 때문이며, 고 연령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야학교사 B: 제도권 교육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결과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이가 많은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야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야학교사 C: 나이가 많을수록 학습속도가 떨어지는 것 때문일 거예요, 기초문해반의 지적 장애 학생들이 점점 고정화되어 머물러 있는 경우는 다른 야학들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보여요.

### 3. 장애인야학의 교사 현황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따라서 장애인야학의 발전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교사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20개교의 연령별, 경력별 교사 현황과 교사들의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그리고 신입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 1) 장애인야학의 교사 보유 현황

먼저 장애인야학의 교사 보유 현황을 유급교사(상근교사)와 무급교사(비상근교사) 및 실무자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장애인야학 교사 보유 현황 M(SD)

| 교사              |               |                  |                 | 실무자             |               |
|-----------------|---------------|------------------|-----------------|-----------------|---------------|
| 유급 교사           |               | 무급 교사            |                 |                 |               |
| 정교사             | 보조교사          | 정교사              | 보조교사            | 상근              | 비상근           |
| 4.40<br>(3.202) | .40<br>(.995) | 9.15<br>(10.459) | 1.50<br>(4.525) | 2.50<br>(1.906) | .70<br>(.801) |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총 교사 수는 309명으로 기관 당 평균 15.5명의 교사가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무급 정교사가 평균 9.15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유급 정교사가 4.40명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기관마다 약간 명의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며,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는 상근 실무자가 기관 당 평균 2.50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관마다 편차가 매우 커 교사나 실무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야학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야학의 교사 보유 현황에 대하여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국가적인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야말로 야학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야학교사 C: 장애인야학에서 유급교사는 야학에서 상근하면서 수업이나 수업보조 또는 행정 일을 맡게 되구요, 무급교사들은 비정기적으로 야학에 나와 수업이나 수업보조를 맡아 일하게 됩니다. 상근 실무자는 주로 야학의 재정, 행정처리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일을 처리합니다.

야학교사 B: 장애인야학이 장애성인 평생교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면 좀 멀리 보고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직업인으로서 일할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학생 수에 비해 상근교사의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야학 학생들의 삶에 귀를 기울이거나 고민을 함께 나눌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야학교사 E: 상근교사와 비상근 교사 사이에 문제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야학의 모든 의사결정은 모든 교사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진행되지만, 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상근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일들이 있어 비상근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야학의 운영주체로서의 정체성을 잘 못 가질 수 있거든요.

이처럼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야학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인으로서 맡은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의 충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었다.

## 2) 장애인야학 교사의 연령별 분포 현황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의 성별·연령별 분포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성별·연령별 분포 현황

N(%)

| 과정 \ 연령 | 30세 미만        | 30~39세       | 40세 이상        | 계            |
|---------|---------------|--------------|---------------|--------------|
| 남       | 42<br>(28.4)  | 39<br>(26.4) | 67<br>(45.2)  | 148<br>(100) |
| 여       | 69<br>(42.9)  | 37<br>(22.9) | 55<br>(34.2)  | 161<br>(100) |
| 계       | 111<br>(35.9) | 76<br>(24.6) | 122<br>(39.5) | 309<br>(100) |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여교사가 52.1%로 남교사(47.9%)보다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이상이 122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30세 미만의 교사가 111명(35.9%), 30~39세 교사가 76명(2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전체 교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야학(이훈도, 1997)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장애인야학 교사의 연령별 분포를 다시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교사의 경우에는 40세 이상의 교사가 45.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30세 미만의 교사가 28.4%, 30~39세 교사가 26.4%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교사의 경우는 30세 미만의 교사가 42.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차이를 보였다.

이상의 조사 내용에 대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대부분은 예전과 달리 장애인야학이 보다 전문적인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야학교사 A: 대학생의 자원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던 장애인야학이 점차 전문성을 가져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학교사 D: 예전에는 대학생 신입교사가 많았다면 요즘은 대학생보다는 40대 직장인 신입교사가 많아졌어요. 30대가 낮은 이유는 경제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 3)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경력별 분포 현황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교사의 성별·경력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성별·경력별 분포 현황

N(%)

| 연령<br>과정 | 1년 미만        | 1년~3년 미만      | 3년~5년 미만     | 5년 이상        | 계            |
|----------|--------------|---------------|--------------|--------------|--------------|
| 남        | 34<br>(23.0) | 67<br>(45.3)  | 11<br>(7.4)  | 36<br>(24.3) | 148<br>(100) |
| 여        | 53<br>(32.9) | 61<br>(37.9)  | 22<br>(13.7) | 25<br>(15.5) | 161<br>(100) |
| 계        | 87<br>(28.2) | 128<br>(41.4) | 33<br>(10.7) | 61<br>(19.7) | 309<br>(100) |

장애인야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경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1년~3년 미만의 교사가 전체의 41.4%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의 교사가 28.2%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결국 장애인야학 교사의 69.6%가 3년 미만의 경력 교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교사 역시 19.7%로 교사의 20% 가량은 오랜 기간 동안 장애인야학의 교사로 남아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교사의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남교사의 경우 여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5년 이상의 경력 교사가 많은 반면, 여교사의 경우는 1년 미만의 경력 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의 내용에 관하여 대부분의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자원봉사 위주의 교사수급에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수업은 물론 야학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였다.

야학교사 A: 교사들의 잦은 변경은 학생들도 많이 혼란스러워 해요. 10년 전의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굉장히 발전하지 못하는 모습이지요.

야학교사 D: 안타깝게도 장애인야학에서 오래된 경력교사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 마치고 혹은 공부 마치고 야학에 와서 수업을 한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야학에 와서 수업하고 가는 정도로는 야학에 대한 애정이나 멤버십이 형성되기 어려워요,

야학교사 E: 야학 교사로 활동하는 기간이 짧고 교사의 교체주기가 짧아질수록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학생과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장애인야학의 경우는 특히 그 문제에 더 취약해요,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야학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기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 4) 장애인야학 교사의 자격증 소지 현황

다음으로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교육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를 복수 응답한 현황 결과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13>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현황

| 구 분          | 교 사   |       |
|--------------|-------|-------|
|              | 빈도(명) | 비율(%) |
| 일반교사         | 90    | 29.1  |
| 특수교사         | 12    | 3.9   |
| 특수교육보조원      | 3     | 1.0   |
|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원 | 4     | 1.3   |
| 평생교육사        | 15    | 4.8   |
| 사회복지사        | 37    | 12.0  |
| 기타 관련 자격증    | 55    | 17.8  |

조사대상 장애인야학의 전체 교사 309명 중 일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90명으로 전체의 29.1%,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12명으로 전체의 3.9%, 특수교육보조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교사는 1.0%, 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원 자격증 소지자는 1.3%,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는 4.8%,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2.0%, 그리고 기타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17.8%로 결코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교사의 전문성이 극히 결여되어 있는 일반야학에 비해 장애이해 및 전문적인 교사 준비과정을 거친 교사들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을 면담한 결과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육관련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었으며, 최근 수도권 지역의 야학을 중심으로 장애인야학 교사 세미나를 개최하고 야학별로 연구수업을 진행하는 등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야학교사 A: 기존의 자격증에 의존하기보다는 야학 내에서의 전문성을 따로 확장하고 키워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학교사 B: 제도권 교육이 아닌 야학에서 자격증의 소지 여부가 중요한가요?

야학교사 D: 장애인야학 교사의 자격이 자격증으로 환원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경험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야학의 운영이나 실제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특별히 더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처럼 모든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야학 교사들에게 교육관련 자격증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야학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도 방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의 연수를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교사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이에 앞서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처우에 대한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야학 교사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함께 장애인야학 교사의 자격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를 마련한다면 야학 교사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 5) 장애인야학 신입교사 교육 현황

장애인야학 교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각 야학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사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 공인된 자격증이나 전문성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성실하고 교육자적인 자질을 갖춘 희생적인 심성과 함께 학생들을 사랑으로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용욱, 김병하, 2007; 김병하, 2009; 김용욱, 하상근, 2009). 그래서 많은 야학에서는 신입교사들을 대상으로 예비교사 기간을 갖게 하는데, 이는 제도 교육권에서의 교생실습과 같은 것이다. 이 기간에는 수업참관, 야학교육에 관한 세미나, 토론, 교사회의 참석 등을 하게 된다.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신입교사 교육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교육 내용 및 진행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4>와 같다.

〈표 14〉

장애인야학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 교육 내용           | 진행 유형           |
|-----------------|-----------------|
| 발렌티어 학교         | 강의, 소개, 참관, 면담  |
| 자원봉사 및 보조교사 교육  | 세미나 및 개인별 면담    |
| 장애인의 이해         | 강의              |
| 학교소개 및 장애인권 교육  | 워크숍             |
| 성인장애인 학습 진행 방법론 | 강의              |
| 오리엔테이션 및 수업참관   | 강의 및 참관         |
| 장애운동의 역사 등      | 교장 및 선배교사와의 세미나 |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20개교에서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야학은 13개교(65%), 실시하고 있지 않은 야학은 7개교(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야학의 주요 교육내용은 자원봉사 및 보조교사 교육, 장애인과 인권에 관한 강의, 학교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수업 참관 등으로 횟수도 매우 제한적이며 내용도 교사 준비과정으로 보기에 다소 부족해 보인다.

이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자원봉사 위주의 교사들에게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었다.

야학교사 A: 비상근교사들이 조금 더 야학 내에서 애착을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야학들 간의 프로그램 공유도 중요해 보여요.

야학교사 B: 많은 야학에서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이 부실한 것이 현실이지만, 자원봉사 위주의 야학이라면 신임교사에게 많은 시간이 드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수하게 만드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요. 야학끼리 서로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된 교육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해요.

야학교사 D: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일회성 교육보다는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정기적으로 야학의 문화를 익히고 학생과 교사 사이의 친분을 쌓아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성이 있으며, 전국 장애인야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유하여 체계적인 신임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 IV. 논의 및 제언

### 1. 논 의

이 연구는 전국 장애인야학의 교육과정, 학생현황 및 교사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현직 야학 교사들과의 면담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야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제 이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장애인야학의 발전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야학에서는 기관 당 평균 4.25개 학급의 기초문해반 및 초·중·고등과정의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고 있고, 평균 27.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 장애인야학을 찾아오는 발달장애인과 낮은 진급률로 인해 검정고시반에 비해 기초문해반의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기초문해반 및 초등과정반 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맞춤형 교재의 개발, 보조인력의 확보, 교수학습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고등과정반의 경우 전문적인 교과교사와 진학상담교사의 배치를 필요로 했다. 한편 장애인야학에서는 기초문해교육과 학력보완교육 이외에도 문화예술교육과 인문교양교육을 중심으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높은 흥미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적인 강사수급 문제로 다양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야학은 문화예술교육(60.1%)과 인문교양교육(23.0%)에 지나치게 편중된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김두영, 박원희, 김호연, 2014)에 비해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직업능력향상교육을 개설하고 있는 장애인야학이 한 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요구를 분석한 여러 선행연구들(백은희 외, 2001; 정인숙 외, 2005; 정해동, 이성봉, 2007; 윤점룡 외 2010; 송소현 외, 2011; 김기룡 외, 2014 등)은 향후 장애성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직업교육임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와 통합이 장애인야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라면 장애인야학은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국립재활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장애예방 교육 강사 발굴 및 양성 프로그램’(이법석, 2008)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인이 자신

의 사고경험을 바탕으로 한 안전교육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과의 구조화된 접촉경험을 갖도록 하는 연구를 시행한 결과,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 이해교육이 일반 학생들의 집중력과 현장감을 높여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교육 후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철우 외, 2008; 김해시장장애인복지관, 2008; 박영아, 김태준, 2010). 이러한 장애예방 강사 양성 프로그램이나 현재 노들야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권 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 취업연계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전국 장애인야학이 함께 공유하여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학력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학을 포함한 초등 이하의 학력을 가진 학생이 전체의 43.0%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도 10% 이상을 차지하였다.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장애유형을 살펴보면, 지적장애 학생(30.5%)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지체장애(29.0%), 뇌병변장애(2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문해반 학생의 절반 이상이 지적장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교사들은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야학 학생들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학생이 33.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40대(32.2%), 30대(2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장애인야학 학생들은 저학력·고연령 및 중증화로 인해 개별화교육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사들 역시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학급 편성과 보조인력의 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애성인 평생교육기관의 이용 대상을 조사한 선행연구들(정인숙 외, 2005; 김정재 외, 2009; 임경원 외, 2010 등)에서는 뇌병변장애나 지체장애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50대, 지적장애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기관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최근 야학을 찾아오는 발달장애성인이 급증하고 있다는 교사들의 말을 고려해 볼 때, 조사 시기에 따른 차이로 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이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장애유형 및 연령대의 학습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장애인야학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장애성인 학습자의 장애유형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여 각 장애특성과 수준에 맞게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특히 문해교육의 경우 인지적인 장애의 정도를 기준으로 교재, 교구를 사용하는 것에 차별성을 두어야 한다. 지난 2007년과 2011년 정부는 저학력 장애성인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문해교육에 사용될 장애성인 학습자 맞춤형 교과서를 개발한 바 있으나,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그리 높아 보이지 않다는 것이 야학 교사들의 반응이다. 보다 질 높은 교육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차원에서 이 교재를 활용한 다양한 교수모델 개발과 성인 학습자의 장애유형별,

수준별 교재 개발과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인야학 교사는 여전히 자원봉사 위주의 무급 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과거와는 달리 40세 이상의 교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경력별 분포에서도 1~3년 미만의 교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3년 이상의 경력 교사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야학 교사의 교육관련 자격증 소지 비율은 30% 수준으로 나타났고, 신입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으나, 교사의 전문성이 극히 결여되어 있는 일반야학에 비해 장애이해 및 전문적인 교사 준비과정을 거친 교사들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으며, 장애인야학 교사들 역시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었다. 장애인교사들은 교육관련 자격증이나 신입교사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도 교사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함께 교사의 자격 조건 등을 명시한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장애인야학이 장애성인 학습자들에게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장애인야학의 교·강사로 활동하는 야학 교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대부분의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공인된 자격증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면서도 지적장애 성인에 대한 교수·학습 지도 방법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으며,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장애인 평생교육의 경우 비제도권 교육으로 여겨지고 있어 교사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위주의 무급교사가 대부분인 장애인야학 교사들은 근속기간이 짧고 안정적인 교·강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실제로 2012년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회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전국의 장애인야학 교사 중 활동 경력이 2년 미만인 경우가 64%에 달하는 상황이다(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 따라서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야학 교사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자격 기준을 명시한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와 더불어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시급하다. 교사 1인으로는 장애성인의 개별화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건비 지원과 함께 교사들의 전문성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시급하다. 장애성인의 학습과 관련된 인지, 기억, 전략 등 개별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지식과 그 특성에 맞추어 전문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해와 교육, 장애성인교육, 다양한 교수 방법론, 장애인의 보편적 인권 등과 같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김석진 외, 2012). 지난 2011년 국립특수교육원 주최로 ‘장애성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담당자 과정’의 직무연수가 진행된 바 있으나, 1회성에 그쳤고 연수의 내용도 장애성인 평생교육 정책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이어서 장애와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현장의 교육에 적용을 원하는 교사들의 요구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

국가적인 차원의 제도 마련과 인건비 지원이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장애인야학의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차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야학 참교육 실천대회’, ‘장애인 교육철학 강좌’, ‘장애인 인권 교육 마당’, ‘장애인야학 교사 양성대학’, ‘장애인야학 교사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은 야학 교사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나름대로의 큰 성과를 내고 있으나, 전반적인 참여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이들 프로그램을 전국장애인야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발달장애성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지도 방법,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등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신입교사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전국장애인야학이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장애인야학 중 신입교사에 대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13개교이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34개 장애인야학 중 신입교사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11개 기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2014).

공인된 자격증과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야학 교사는 멋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김병하, 2009: 327).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야학 교사는 야학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장애인야학 교사는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된다. 신입교사 교육 프로그램은 제도권 교육의 교육실습과 같은 것이다. 교육실습은 예비교사에게 인턴십의 역할(김선혜, 2012), 교육지식을 재구성하는 역할(허창수, 2007), 도전과 반성의 역할(정혜영, 2009)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기간에는 장애학생뿐만 아니라 지도교사 및 관리자와의 상호작용, 실제 수업 진행과 학급 운영, 야학의 다양한 행사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야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해 봄으로써 교사로서의 자질과 태도 및 지식을 획득하게 된다. 특히 장애인야학의 교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장애유형과 특성 및 수준이 다양한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교사로서의 성장과 실천을 도모하며, 교직의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고 교사로서의 역할과 사명감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야학 스스로 사전준비 지도 단계, 관찰실습 단계, 현장실습 단계, 사후 지도 단계 등의 체계적인 신입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 2. 제 언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4조(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

교육시설)에 의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장애인야학은 본격적인 학교교육 형태의 평생 교육 지원의 장으로서의 가치를 부여받게 되었다(김두영, 박원희, 2013b).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각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장애인야학에 대한 지원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2000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 9곳에 불과하던 장애인야학은 현재 전국에 40곳 넘게 운영되고 있다(교육부, 2013). 전국에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 학교가 160여 개교인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야학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이들 장애인야학의 대부분은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의 부족, 교육공간의 부족 또는 낙후된 교육환경의 문제, 학생들의 통학 문제, 교육기자재 부족, 교사 수급의 어려움, 보조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야학은 교육 수혜의 혜택으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해 왔던 장애성인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대표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야학이 향후 중장기적 계획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안정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수반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야학이 향후 장애인 평생교육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며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수한 프로그램은 장애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유도에 있어서 핵심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야학 학생들의 교육적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업 능력향상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장애성인의 경우 장애 특성과 수준이 다양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만든 교재의 경우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김석진 외, 2012). 따라서 다양한 장애유형별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교재 및 교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모형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셋째, 장애성인 교육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것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고도의 전문적인 역량을 구비한 전문가의 지원과 그들의 지속적인 전문성 함양에 의해 결정된다(정동영, 2004). 따라서 장애인야학 교사들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연구수업 등 수업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전준비 지도 단계, 관찰실습 단계, 현장실습 단계, 사후 지도 단계 등 체계적인 신입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장애인야학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장애인야학 교사만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장애인야학은

교사뿐만 아니라 실무자, 자원봉사자, 학생 등 다양한 주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로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보다 심층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들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순원, 김운태, 김정환, 박경석, 이미정 (2011). **서울형 장애성인 평생교육 운영 모형 개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제3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 ('08 ~ '12).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2008). **2008 평생교육 백서**.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 (201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3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교육부.
- 김기룡, 김치훈, 윤진철, 이해영 (2014). **장애성인을 위한 대학중심 평생교육에 관한 설문조사**. 서울: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립한국복지대학교.
- 김두영 (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박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김두영, 박원희 (2013a).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8(2), 245-271.
- 김두영, 박원희 (2013b). **장애인야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4(4), 1-25.
- 김두영, 박원희, 김호연 (2014).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설정향성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8(4), 364-387.
- 김병하 (2009). **장애인야학의 특수교육적 함의와 과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321-328.
- 김석진 외 (2012). **장애성인 문해교육 지원방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김선혜 (2012). **예비초등교사의 단계적 교육실습 경험에 따른 교직사회화 과정**. **교육과정연구**, 30(3), 271-294.
- 김운태, 김성애, 박찬웅, 김운덕, 김은주, 박은영, 김정숙, 김병철 (2009). **중증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원 설립에 관한 연구보고서**.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 김정재, 이상로, 송민경, 구미영, 도지영, 서은경, 최복천, 김기룡 (2009). **경상남도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남: 경상남도교육연구정보원.
- 김주영, 김두영, 정희섭, 한경근, 홍석의 (2013). **대학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모형 개발**. 평택: 국립한국복지대학교.
- 김해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2008). **장애인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애예방&이해학교**. 사업책자.
- 박영아, 김태준 (2010). **후천적 장애인 당사자가 진행하는 장애예방이해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연구**, 5, 61-77.
- 박은혜, 원종례, 김주영, 최옥이 (2007).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E시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연구, 14(1), 3-24.

박철우, 이범석, 이자경, 박형근, 임문희, 김선홍, 김형준, 최수원, 김승수 (2008). 장애예방교육이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실천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대한재활의학회지**, 32(2), 160-168.

백은희, 곽승철, 전병운, 김종인 (2001).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6(1), 169-205.

변용찬, 서동우, 이선우, 김성희, 황주희, 권선진, 계훈방 (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송소현, 김영미, 김영표, 나홍주, 박재국, 정해동 (2011). **특수학교 기반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모형 개발**.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윤점룡, 양종국, 원성옥, 강병호, 정인숙 (2010). **성인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이범석 (2008).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한 3년간의 장애예방사업 평가**. 2008년 장애예방 세미나 자료집, 서울: 국립재활원, 3-23.

임경원, 곽승철, 노진아, 이유리 (2010).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2014). **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2014년 정기총회 자료집**. 서울: 전국장애인아학협의회.

정동영 (2004). 장애인 평생교육: **장애성인 교육의 현황·과제 및 대책**. 장애인교육권 보호·향상을 위한 3차 토론회 자료집, 41-68.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정인숙, 김현진, 김형일, 정동영, 정희섭 (2005).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정해동, 이성봉 (2007). 충남지역 평생교육 기관의 장애인 프로그램 운영 실태 및 요구분석. **특수교육연구**, 14(1), 25-45.

정혜영 (2009). 초등 교육실습 기간 확대 및 내용 강화를 적용한 사례연구. **한국교원교육연구**, 25(3), 241-260.

한준상 (2001). 평생학습 사회와 장애인의 평생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국립특수교육원 2001년 특수교육 정책포럼 자료집**, 1-18.

허창수 (2007). 교육지식을 재구성하는 장으로서 교육실습: 다섯 교육실습생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5(1), 95-127.

## Night Schoo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The Current Status & Future Direction

**Kim, Doo-Young**

Graduate School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Park, Won-Hee**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implemented to analyze the status of night schoo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well as to make suggestions on developmental plans for the night schools. 20(55.6%) night schools were participated for the current survey out of 36. Furthermore, to gather opinions regarding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s about management of night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nalysis about the contents of question, interview investigation of teachers in present night school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comb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ean of the number of classes (most of them are related to foundation of literacy and general educational development testing program) they have was 4.25. And the mean of the number of registered students for those programs was 27.2. The age and educational degree of people who registered for the programs at night schools were various but most of them are included the group of high in age and low in educational degree. To analyze teacher's background, the group of the age in '40 through 49', and the group of '1 through 3' years of teaching experiences was the highest. Unfortunately, only 30 percent of teachers are properly certified for teaching jobs. Most of them do not have in-service training programs for the first year teachers. In spite of this, teachers who have undergone understanding about disability and professional educational procedures for teacher were identified compared to other general night school which is seriously deficient teacher's expertise, and teachers in night school were shown to put continuous endeavor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lesson as well.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developmental plans for the night schools were suggested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were noted.

**Key Words :** night schools, night school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논문 접수: 2014. 04. 09 심사 시작: 2014. 05. 09 게재 확정: 2014. 06. 21